국제 금융 속보

국제금융센터
Flash News
2024. 7. 12
해외동향부 (제 6881)

■ **주요 뉴스: 미국 6월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 인플레이션 완화 및 9월 금리인하 기대 증가**

○ 연준 주요 인사, 경제 연착륙을 예상. 금리인하 관련 의견은 다소 상이

○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재정적자 경고. 재정경제부 장관은 재정지출 축소를 추진

○ IEA, 금년 및 내년 전세계 석유 수요 증가세 약화 예상. 중국의 경기 둔화 반영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금리인하 기대 증가, 일부 기술주 고평가 가능성 등이 영향**

주가 하락[-0.9%], 달러화 약세[-0.6%], 금리 하락[-7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Nvidia 등 기술주 중심의 차익실현 영향 등으로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유틸리티 관련주 매수 증가 등으로 0.6%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6월 소비자물가지수의 예상치 하회 등이 반영**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4%, 1.8%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9월 금리인하 전망 강화 등으로 하락**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의 영향 등으로 7bp 하락

※ 뉴욕 1M NDF 종가 1369.8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72.3원, 0.04% 하락). 한국 CDS 약보합

		7/11일	7/10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5,584.5	5,633.9	-0.88%
	유럽	519.51	516.42	+0.60%
	중국	2,970.4	2,939.4	+1.06%
	일본	42,224	41,832	+0.94%
	한국	2,891.4	2,868.0	+0.81%
환율	달러지수	104.47	105.05	-0.55%
	유로화	1.0868	1.0830	+0.35%
	엔화	158.84	161.69	+1.79%
	위안화	7.2579	7.2760	+0.25%
	원화	1,372.8	1,384.0	+0.82%

		7/11일	7/10일	전일대비
국채금리 10y	미국	4.21%	4.28%	-7bp
	독일	2.46%	2.53%	-7bp
	영국	4.07%	4.13%	-5bp
CDS 5y	한국	35bp	35bp	-0bp
	중국	56bp	57bp	-1bp
위험지표	EMBI+	-	399	-
	VIX	12.92	12.85	+0.54%
원자재	WTI유	82.62	82.10	+0.63%
	구리	450.9	460.8	-2.15%
	금	2,415.5	2,371.3	+1.86%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종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6월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 인플레이션 완화 및 9월 금리인하 기대 증가**

○ 6월 헤드라인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연간 및 월간 상승률이 모두 전월비 둔화(각각 3.3%→3.0%, 0.0%→-0.1%). 근원 CPI의 연간 및 월간 상승률 역시 전월비 낮은 수준(각각 3.4%→3.3%, 0.2%→0.1%). 아울러 헤드라인 및 근원 CPI 상승률은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3개월 연속 하락세 지속

○ 식품, 유틸리티, 운송 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물가 하락이 발생했고, 이는 경제 전반에 인플레이션 둔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 특히 주거비의 월간 상승률이 '21년 8월 이후 최저 수준. 이러한 주거비 상승세의 둔화는 인플레이션(연율)이 2%대로 회복하고 있음을 시사(MacroPolicy Perspectives)

○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 결과를 토대로 9월에 금리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가 고조(Bloomberg Economics). CME의 FedWatch Tool은 금년 2회(9월과 11월. 각 0.25%p)의 금리인하를 예상했고, 특히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전일 대비 큰 폭으로 상승(77.2%→99.2%)

○ 한편 7월 1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는 22.2만건으로 전주(23.9만건) 대비 낮은 수준. 연속 청구건수는 185.2만건으로 전주(185.6만건) 대비 소폭 감소하며 예상치를 하회. 다만 이번 결과는 독립기념일 휴일과 자동차 제조업체의 공장 미가동 등 계절적 요인으로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제기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연준 주요 인사, 경제 연착륙을 예상. 금리인하 관련 의견은 다소 상이**

○ 쿡 이사는 인플레이션 완화가 지속되지만 실업률이 크게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발언. 다만 구체적인 금리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 세인트루이스 연은의 무살렘 총재는 금리인하 단행 전에 추가적인 물가 둔화 증거가 필요하며, 현행 통화정책이 지나치게 제한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

○ 반면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데일리 총재는 최근 고용과 물가 지표를 감안할 경우 금리를 일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 시카고 연은의 굴스비 총재 역시 물가가 목표치를 향하고 있으며, 경제 여건은 과열되지 않았다고 강조. 이는 연준이 조만간 금리인하에 나설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

■ **미국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 관련 하원 전체 의견 수렴할 방침**

○ 민주당 내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당 소속 213명의 하원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발표

■ **영국 5월 국내총생산, 예상치 상회. 경기 회복 기대 증가**

○ 5월 국내총생산(GDP)이 전월 대비 0.4% 증가하며 예상치(0.2%) 큰 폭 상회. 이는 서비스 부문의 확장세와 주택 건설의 반등으로 경기가 회복하고 있음을 시사. 파운드화 가치는 이번 발표 이후 상승하여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다만 일부에서는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재정적자 경고. 재정경제부 장관은 재정지출 축소 추진**

○ 드 갈로 총재는 더 이상 재정적자 확대를 용인하거나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세금 및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 한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재정지출 축소를 추진할 것이며, 금년과 '27년 재정적자를 각각 GDP 대비 5.1%, 3.0% 수준 이내로 줄이겠다는 목표 제시

■ **중국 금융 당국, 일부 은행에 채권 관련 위험 축소 요구**

○ 소식통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일부 농촌 대출기관에 보유 채권의 듀레이션을 줄이도록 요구. 이는 장기물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 당국이 은행 부문을 보호하고 국채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조치로 해석

■ **IEA, 금년 및 내년 전세계 석유 수요 증가세 약화 예상. 중국의 경기 둔화 반영**

○ 전세계 2/4분기 석유 소비가 일일 71만 배럴 증가. 이는 '22년 말 이후 최저 수준이며, 중국의 경기 위축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 또한 금년과 내년 전세계 수요는 일일 100만 배럴 미만 수준에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7/12 현지시각 기준)**

○ 미국 6월 생산자물가지수, 7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 프랑스 및 스페인 6월 소비자물가, 중국 6월 수출입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연준의 금리인하 시기, 물가상승 둔화·노동시장 냉각 등에도 9월 전망이 우세 - 블룸버그**
(The Fed Should Cut Rates Now. Sadly, It Won't.)

○ 6월 소비자물가 결과는 고무적이었으며, 이에 물가 상승이 억제되고 있음이 확인. 한편 실업률은 상승하고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 이에 일각에서는 연준의 2가지 책무 가운데 최대 고용 관련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에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

○ 그러나 시장에서는 연준이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신중함을 우선시하여 9월까지 금리인하를 연기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 편. 다만 연준은 정책 기조가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7월 FOMC 성명서의 문구 변경, 연준 주요 인사들의 발언 등을 통해 관련 신호를 발신할 것으로 예상

■ **중국 시진핑 주석, 3중 전회에서 주요 정책의 전환 시도가 요구 - 블룸버그**
(Xi Is Doing Things His Way. That's Not Helping China)

○ 중국 경제는 30년래 최저 수준의 외국인 투자, 부동산 위기 등으로 난관에 직면. 이에 시진핑 주석은 지난 1978년 덩샤오핑이 3중 전회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마련의 장으로 활용한 것에 주목할 필요

○ 그러나 시 주석은 국가안보를 최우선 순위로 여기며 통제를 강화. 이는 일자리 우려 심화 등 경제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투명한 투자환경이 제한되면서 국제 비즈니스 활동이 위축. 이에 3중 전회를 계기로 대외 신뢰 개선 노력이 중요. 그러나 미국과의 무역갈등 심화 등으로 기존 주요 정책의 선회는 어려울 소지

■ **영국의 경제 성장 촉진, 금융 서비스의 전략자산 인식 등이 필요 - Financial Times**
(Three ideas for unlocking the UK's economic potential)

○ 총선 이후 노동당 중심의 의회가 개원하면서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가 고조. 신임 리브스 재무장관은 재정지출 확대보다는 경제 성장과 투자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

○ 첫째, 외국계 금융회사가 밀집한 금융 중심지로서의 지리적 이점 활용 등 금융서비스 부문을 전략자산으로 인식. 둘째, 상장요건 개선 및 거래 관련 세금 인하 등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 셋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유동성 확대. 이러한 경제적 잠재력의 극대화 노력은 경제 성장 촉진에 기여할 전망

■ **경제이론에 지나치게 의존한 정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 - Financial Times**
(Economists are overly reliant on rules)

○ 사회과학 연구에서 통상적으로 가정하는 '다른 조건이 일정하면'의 원칙은 경험칙에 기초. 하지만 현실은 이와 관련하여 수정 혹은 변경할 사안이 존재. 일례로, 과거 유럽에서 물가와 실업이 역방향인 필립스 곡선이 성립하지 않았던 경우가 존재

○ 또한 미국은 무역 부문에서 중국과의 비동조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양국은 여타 국가와의 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서로 연결. 이에 실제 결과는 당초 미국의 의도와는 상이. 이를 감안한다면, 경제 이론의 유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실 세계의 복잡함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괴리를 줄이는 노력이 요구

■ **미국 증시, AI 관련주는 양호한 분기 실적 예상되나 높은 밸류에이션이 부담 - WSJ**
(Get Ready for More AI Mania This Earnings Season)

■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 트럼프 2기 집권 시 경제정책 관련 의견 충돌 예상 - WSJ**
(Republicans Are Fracturing on the Economy)

■ **미국 저신용 기업대출, 채무불이행 증가 등을 고려 시 부실화 우려 점증 - WSJ**
(The Risky-Loan Trade Is Back)

금융시장 주요 지표

S&P500 및 KOSPI

미국 및 한국 국채 10년물

자료 : Bloomberg

달러인덱스 및 원/달러 환율

브렌트유 및 유럽 천연가스

자료 : Bloomberg

VIX 및 EMBI+

달러-원 스왑베이시스 및 한국 CDS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